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여우커(游客)의 한국 유입실태 및 전망 고찰

왕옥지*

<目 次>

1. 머리말
2.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2016년까지), 주요 訪韓 外來客 실태
3. 중국 여우커의 訪韓 금지 결정과 실태
4. 訪韓 금지 결정 8개월 이후 현황과 전망
5. 맺음말

1. 머리말

한국을 찾은 외국인인은 1975년 63만 명에서 19780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다.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과 함께 한국을 찾은 외국인인은 200만 명으로, 한국관광광사에 새 기록을 세웠다. 그 후, 2010년 800만 명에 이어 2012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그 후 해마다 訪韓(한국 방문) 외국인인은 100만 명 이상 증가하여, 2013년에는 1,200만 명, 2014년에는 1,400만 명,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한 2015년에도 1,300만 명에 달했고, 2016년에는 1,700만 명에 달하였다. 여기에는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크게 작용을 한 동시,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¹⁾·국제회의·비자제도의 간략화 등이 한

* 동명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중국어학 전공 부교수.

1) 대한민국·중국·일본·인도·아르헨티나·오스트레일리아·브라질·캐나다·프랑스·독일·인도네시아·이탈리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나라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터키·영국·미국·유럽연합 등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2010년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한국이란 브랜드를 높였다.

뫼을 하였다.

2016년 7월 8일, 중국정부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이 발표되었다. 이어 공식문건으로 존재하지는 않은 限韓令(한류금지령)이란 새로운 단어가 한국에서 출현하였고, 2017년 1월-10월 전체 訪韓 외국인은 마이너스(-23.9%) 성장에 이르렀다. 이어 사드배치 결정이 한국의 경제·관광산업에 미친 영향과 미래전망에 대한 분석이 다양하게 나왔다. 그러나 관련 분석과 연구들은 대체로 사드 배치 자체 문제²⁾나 사드 배치와 종교³⁾·안보⁴⁾·군사전략⁵⁾·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⁶⁾·한중정상회담⁷⁾·限韓令⁸⁾·각 중 외국인의 한국 방문 목적⁹⁾ 등과 관련된 연구이며, 한국의 관광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여우커의 한국 유입 실태변화,

-
- 2) ①『한반도 사드배치의 위헌성』, 이종원, 한국방송대학교, 석사논문, 2017년. ②『사드 배치 거짓과 진실: 사드 제대로 알기』, 고영대, 나무와 숲, 2017년. ③『사드의 모든 것』, 정육식, 유리창, 2017년.
- 3) 『사드 배치 반대활동을 통해 살펴본 원불교의 사회적 역할』, 이승민,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2018년.
- 4) 『통일·안보정책의 정치화와 사드 배치 논란』, 김재한, 『통일전략』 No.4, 2016년.
- 5) ①『사드 배치 문제의 군사전략적 함의』, 박휘락, 『통일전략』 No.4, 2016. ②『사드 한반도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과 한반도 미래』, 김동엽, 『국제정치논총』 No.2, 2017년.
- 6) ①『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공중여론을 중심으로』, 종령,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2017년. ②『한국의 사드 배치 결정전과 후 중국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비교연구』, 김진경, 정규엽 외, 『호텔경영학연구』 No5, 2017년.
- 7)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과제: 한중 해빙기 도래에 대비해야 한다』, 한재진, 천용찬 외, 『이슈리포트』 No.32, 2017년.
- 8) ①『한한령과 중국인의 한국 및 한국 콘텐츠에 대한 태도: 한국 경험 및 한국 콘텐츠 이용 경험의 차이를 중심으로』, 유양, 국민대학교, 석사논문, 2018년. ②『중국의 반 한류에 관한 연구: 2016년 한한령의 영향과 중국유학생의 인식을 중심으로』, 비양,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2017년. ③『한한령을 통해서 본 중국사회의 범정치화 현상 연구』, 손영풍, 서울시립대학교, 석사논문, 2017년. ④『한한령에 대한 중국 언론보도 사회관계망 분석(SNA) 연구』, 주민옥, 『중국학』, 2017, 9. ⑤『한한령을 통해 본 중국대외문화정책의 딜레마』, 권기영, 『중국문화연구』 vol.37, 2017년.
- 9) ①『외국인의 한국생활문화 친숙도와 방문행동의도의 관계』, 홍영운, 성신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7년. ②『외국인 성형외과 환자의 동기·정보소스·방문예약 경로의 차이 연구-중국·러시아·영어권 국가 환자를 대상으로』, 주진한, 연세대학교, 석사논문, 2018년. ③『외국인의 한국음식에 대한 성향분석 및 연극을 활용한 향도 메뉴 개발』, 윤성아, 대구가톨릭대학교, 박사논문, 2014년. ④『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한국방문 외국인의 한국 전통문화 소비 실태 연구』, 윤유경·채지영, 『사회과학연구논총』, 2007년.

중국 여우커의 訪韓 금지에 대한 시기와 배경 등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사람들은 限韓令과 중국 여우커의 訪韓 금지는 동시에 일어난 것으로 막연하게 인지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와 다르다. 그리고 중국 여우커¹⁰⁾에 대한 연구도 많지 않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모든 관광산업의 주요소가 되는 관광객, 즉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바운드 관광산업에서 입각하여, 중국 여우커가 한국 인바운드 관광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구체적이며 전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30여 년간 주요 한국 인바운드 外來客(외국 관광객) 실태를 살펴보고, 그 변화의 추이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제1 外來客 및 제1 外來客 소비시장의 힘을 도출해 낸다. 이어 도출된 한국의 제1 外來客인 중국 여우커(游客: 관광객)에 대하여,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1984년 - 2017년 10월까지)의 증감추이를 분석하는 한편, 한반도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여우커의 訪韓 금지 결정 등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살펴봄과, 흔히 일어나고 있는 중국의 대일본 보복 사례와 중국의 공식 보도와 매체 등 방면으로 두루 살펴봄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 여우커의 한국 유입 실태 변화와 미래 전망 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갖는다. 아울러 객관적인 활용자료 제공과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산업에 두루 보탬이 되고자한다.

예컨대 ‘관광산업’은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하여¹¹⁾, 한국의 관광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중국의 단체 여우커(集團游客)와 개인 여우커(散客: 산커)에 관한 실태 및 관광소비추세 등에 대한 전면적이고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분석과 이에 대한 연구는 또 하나의 과제들을 이룰 수 있을 만큼 광범위하므로, 이들 과제와 관련된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10) 「중화권 여우커를 위한 한국관광지 스토리텔링 고찰」, 왕옥지, 『중국학』 55집, 2016년.

11) 관광산업의 종류는 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 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카지노업·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희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관광식당업·시내순환관광업·관광사진업)·교통업 등이 있다.

2. 사드 배치 결정 이전과 이후(2016년까지), 주요 訪韓 外來客 실태

한국관광공사 연도별(월별) 외래객 입국통계 자료¹²⁾를 근거로, 1984년에서 2016년까지 30여 년 동안, 한국 주요 인바운드 외래객 실태를 살펴보면, 일본의 한국 방문객은 1984년에는 576,448명으로 중국의 5,337배, 전체 방문객의 44%를 차지하였고, 1988년에 이르러 100만 명에 불과, 전체 한국 방문객의 48%, 1989년에는 140만 명으로 전체 한국 방문객의 51%, 절반이상을 차지하였다. 1999년에는 200만 명, 2010년에는 300만 명, 2011년에는 320만 명, 2012년에는 350만 명을 돌파하였다. 이렇게 2012년까지 긴 세월 동안, 한국의 최대 방문국가는 일본이었다.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실시한 1979년에서 5년이 지난 1984년 한·중수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인 108명이 한국을 방문하였고, 1987년에는 362명,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는 1988년에는 7,056명이 한국을 찾았으며, 전년대비 20배가 증가하였다. 이에 힘입어 한·중 수교의 해인 1992년 86,865명에 이어 1994년에는 10만 명을 돌파한 140,985명으로 전년대비 3.3배가 증가하였다. 그 후 증가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2002년에 이르러 중국 여우커(539,466명)는 미국(459,362명)을 제치고, 제2의 訪韓 국가의 자리매김을 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1,068,925명을 달성하여, 訪韓 중국 여우커 100만 명 시대를 열었다. 2011년 200만 명 시대에 이어, 2013년 중국은 GDP 7,000 USD 시대를 맞이하여, 해외 중국 여우커는 9,800여만 명¹³⁾에 달했으며, 비록 訪韓 중국 여우커는 전체 해외여우커에서 불과 4.4%를 차지하였으나, 訪韓 중국 여우커(4,326,869명)는 400만 명을 돌파하여, 전체 訪韓 外來客 1,200여만 명 중, 중국 여우커는 36%를 차지하며, 일본의 1.6배로, 드디어 일본(2,747,750명)을

12) <http://www.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연도별(월별) 통계 참조.

13) 2013년 해외 중국 여우커의 수는 총 9,819만 명으로, 총 1,287억 달러, 한 명당 대략 3,252달러를 지출하였다. 중국 여우커의 해외여행의 주요 목적은 쇼핑으로 '세계 관광 도시 연합(WTCF)'에 의하면 해외 중국여우커의 57.8%를 차지한다. 한국에서는 서울을 가장 많이 찾고 있지만, 최근에는 호주와 유럽 여러 국가에서 중국인 모시기에 전력을 세우고 투자를 하고 있다.

재치고, 訪韓 국가로서의 선두자리를 차지하였다. 역대 한국 인바운드 최대 기록을 세웠다. 2014년 해외 중국 여우커 1.07억 명, 2015년 1.17억 명, 2016년 1.31억 명 가운데 방한 중국 여우커는 2014년 5.7%, 2015년 5.1%, 2016년 6.2%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지만, 2014년 방한 중국 여우커(6,126,865명)는 600만 명을 돌파하여, 역시 신기록을 세웠으며, 전년대비 1.4배의 성장을 거두고, 전체 방한 외래객(1,400여만 명)의 43%를 차지하며, 16%를 차지한 일본 관광객의 2.7배에 달하였다. 2015년에는 5,984,170명으로 메르스 사태의 영향을 받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으나, 일본(1,837,782명)의 3.26배에 달하며, 전체 방한 외래객의 45%를 차지하였으며, 방한 중국 여우커 500만 명 시대를 달성하였다. 2016년에는 8,067,722명으로, 800만 명을 돌파, 지금까지 한국 최고의 기록을 세웠고, 일본(2,297,893명)의 3.5배이며, 전체 방한 외래객의 47%를 차지하였다. 이렇게 중국은 1984년 108명을 시작으로 30년이 흐른 2013년에 이르러 한국 최대의 방문국가로 부상, 2014년, 2015년, 2016년에 이르기까지 제1의 방한 국가로 자리 매김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2013년 이후, 400만, 500만, 600만, 800만이란 한국 관광산업 역사상 놀라운 방문기록을 세웠고,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였다. 특히 2016년 7월 8일 사드 배치가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방한 중국 여우커는 역시 한국 역대 최대 방문 기록인 800여만 명의 신기록을 세웠다. 중국·홍콩·마카오·대만·일본·한국 전체 입국 수를 표1과 같이 종합적으로 수록하였고, 중화권 총계를 산출하였으며, 표2와 같이 訪韓 비율을 산출하였다.(통계수치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통계를 통계기준으로 삼았다.)¹⁴⁾

14) <http://www.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연도별(월별) 통계' 참조.

표1. 중화권·일본·한국전체 등의 입국 현황(1984년~2016년 주요 연도별) 단위: 명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중화권 총계 ¹⁵⁾	일본	전체 입국 수
1984년	108	46,587	15	93,543	140,253	576,448	1,297,318
1987년	362	54,030	35	110,373	164,800	893,596	1,874,501
1988년	7,056	62,298	28	124,185	193,567	1,124,179	2,340,462
1989년	19,042	68,504	22	156,530	244,098	1,379,523	2,728,054
1990년	42,516	70,569	30	211,052	324,167	1,460,291	2,958,839
1991년	78,640	72,675	66	281,349	432,730	1,455,090	3,196,340
1992년	86,865	94,241	2	295,986	477,094	1,398,604	3,231,081
1993년	99,957	151,745	2	145,344	397,048	1,492,069	3,331,226
1994년	140,985	121,961	0	137,463	400,409	1,644,097	3,580,024
1997년	214,244	96,650	0	104,144	415,038	1,676,434	3,908,140
1998년	210,662	229,072	0	108,880	548,614	1,954,416	4,250,216
1999년	316,639	234,087	0	110,563	661,289	2,184,121	4,659,785
2000년	442,794	200,874	75	127,120	770,863	2,472,054	5,321,792
2002년	539,466	179,299	9	136,921	855,695	2,320,837	5,347,468
2003년	512,768	156,358	14	194,586	863,726	1,802,542	4,752,762
2004년	627,264	155,058	1,191	304,908	1,088,421	2,443,070	5,818,138
2005년	710,243	166,206	4,345	351,438	1,232,232	2,440,139	6,022,752
2006년	896,969	142,835	3,505	338,162	1,381,471	2,338,921	6,155,046
2007년	1,068,925	140,138	3,781	335,224	1,548,068	2,235,963	6,448,240
2008년	1,167,891	160,325	4,462	320,244	1,652,922	2,378,102	6,890,841
2009년	1,342,317	215,769	7,157	380,628	1,945,871	3,053,311	7,817,533
2010년	1,875,157	228,582	8,130	406,352	2,518,221	3,023,009	8,797,658
2011년	2,220,196	280,849	11,647	428,208	2,940,900	3,289,051	9,794,796
2012년	2,836,892	360,027	21,557	548,233	3,766,709	3,518,792	11,140,028
2013년	4,326,869	400,435	25,945	544,662	5,297,911	2,747,750	12,175,550
2014년	6,126,865	558,380	41,376	643,683	7,370,304	2,280,434	14,201,516
2015년	5,984,170	523,427	33,810	518,190	7,059,597	1,837,782	13,231,651
2016년	8,067,722	650,676	51,001	833,465	9,602,864	2,297,893	17,241,823

15) 중국·홍콩·마카오·대만 등 지역의 방한 실태를 도출한 총계임.

표2. 중화권과 일본이 차지하는 한국 입국 비율(1984년~2016년 주요 연도별) 단위: %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중화권 총계	일본
1984년	0.008	4	0.001	7	11	44
1987년	0.02	2	0.002	6	9	48
1988년	0.3	3	0.001	5	6	48
1989년	0.7	3	0.008	6	9	51
1990년	1.4	2	0.001	7	11	49
1991년	2.4	2	0.002	9	14	46
1992년	3	3	0.0006	9	15	43
1993년	3	5	0.0006	4.3	12	45
1994년	4	3.4	0	4	11	46
1997년	5.4	2.4	0	3	11	43
1998년	5	5.3	0	3	13	46
1999년	7	5	0	2.3	14	47
2000년	8.3	4	0.001	2.3	14.5	46.5
2002년	10	3.4	0.0002	2.6	16	43.4
2003년	11	3.3	0.0003	4.1	18	38
2004년	11	3	0.02	5.2	19	42
2005년	12	3	0.07	6	20.4	41
2006년	15	2.3	0.06	5.5	22.4	38
2007년	17	2	0.06	5.2	24	35
2008년	17	2.3	0.06	4.6	24	35
2009년	17	2.7	0.09	4.9	25	39
2010년	21.3	2.6	0.09	4.6	29	34.3
2011년	23	2.9	0.12	4.3	30	33.6
2012년	25.5	3.2	0.2	4.9	34	31.6
2013년	35.5	3.3	0.2	4.5	44	22.6
2014년	43	3.9	0.3	4.5	52	16
2015년	45	3.95	0.25	3.9	53	13.9
2016년	47	3.8	0.3	4.8	56	13

3. 중국 여우커의 訪韓 금지 결정과 실태

2016년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된 후, 10월 중국정부는 '비합리적 저가여행 상품

의 근절'이란 명목으로 아웃바운드 단체관광객 20% 축소를 지시하였다. 이는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을 구체적으로 들어낸 것은 아니었다. 11월 경북 성주시가 사드배치 지역으로 확정되자, 중국은 광고를 포함해서 중국 TV 한류 연예인 출연 금지, 한국방송(위성tv·인터넷tv 플랫폼) 방영금지 등 한류콘텐츠 제한을 비공식적으로 선포하였으며, 여행규제를 강화하였다. 이것은 한국인이 말하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정부의 보복 '限韓令'이 시작된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과 화장품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고, 증시는 주저앉았다.

그러나 사드 배치가 발표된 2016년, 전체 방한 외래객은 총 17,241,823명으로, 이는 한국 역대 최대의 방문 수치이며, 전년(메르스 사태가 발생한 2015년, 13,231,651명) 대비 30.3%, 4,010,172명이 대폭 증가하였다. 2014년(14,201,516명)보다는 21.4%, 3,040,307명이, 2013년 보다는 41.6%, 5,066,273명이 대폭 증가하였다. 2016년 방한 중국 여우커 역시 역대 최대 방문 기록을 세웠으며, 전년 2015년(5,984,170명)대비 34.8%, 2,083,552명이, 2014년(6,126,865명)보다는 24.1%, 1,940,857명이, 2013년(4,326,869명)보다는 46.4%, 3,740,853명이 대폭 증가하였다. 방한 중국 여우커 역시 큰 이변 없이 최대의 기록을 세웠다. 2013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전체 한국 입국 월별 실태 및 중국 여우커 한국 입국 월별 실태¹⁶⁾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 한국 입국 월별 실태의 증감추이는 중국 여우커의 한국 입국 월별 실태와 절대적인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 수록 증가세가 나타났다. 방한 중국 여우커는 대체로 1월에서 8월까지 약 10만 명의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9월부터 12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진다. 그러므로 방한 중국 여우커가 9월(또는 8월)부터 12월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며, 제한적 감소 현상이라 볼 수 없다.

2016년 사드 배치가 발표된 7월 한 달 동안 한국을 방문한 중국 여우커는 917,519명으로 258.9% 놀라운 성장률을 이루며, 한국 역대 월별 최대기록을 세웠고, 방한 중국 여우커 월별 90만 명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는 동 시기 방한 일본

16) <http://www.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연도별(월별) 통계 참조.

관광객(186,194명, 127.8% 성장)에 4.93배로 731,325명이 더 많다. 8월부터 방한 중국 여우커는 감소세가 이어졌으나, 그 변화의 추이가 2013년·2014년 등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단 9월부터 이어졌던 감소세가 8월 한 달 앞당겨졌을 뿐이고, 감소세의 폭도 예년의 감소세에 머물렀다. 8월에도 873,771명으로, 70.2% 성장률을 이루었고, 동 시기 일본(225,456명, 51.7% 성장)에 3.42배로 648,315명이 더 많다. 9월에는 6,334,312명으로 45.2%의 성장률을 이루었으며, 동 시기 일본(1,660,324명, 19.4% 성장)에 3.82배로 4,673,988명이 더 많다. 10월에는 680,918명으로 4.7%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동 시기 일본(227,149명, 26% 성장)에 2.998배, 453,769명이 더 많다. 11월에는 516,956명으로 1.8% 성장률을 달성, 동 시기 일본(213,211명, 29.5% 성장)에 2.43배로, 303,745명이 더 많다. 12월에는 535,536명으로, 15.1%의 성장률을 달성하며, 동 시기 일본(197,209명, 23.4% 성장)에 2.72배로 338,327명이 더 많다. 즉 사드 배치가 발표된 후, 7월부터 限韓令이 출현한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방한 중국 여우커 월별 수치는 모두 최고의 기록을 세웠고, 6개월 동안의 중국 여우커는 4,250,966명에 달하며, 2016년 전체 한국 외래객 8,067,722명의 52.7%를 차지하였다.(통계 수치와 성장률은 한국관광통계를 따랐다.)¹⁷⁾

2017년 1월에서 3월까지 전체 방한 외래객 수는 3,706,415명으로 전년(3,593,080명)대비 113,335명이 더 많이 한국을 찾았으며, 3.2%의 성장률을 보였다. 같은 기간 방한 중국 여우커는 1,516,815명으로, 전년(1,670,060명) 대비 -9.2%,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나, 여전히 일본(2016년: 505,705명, 2017년: 614,372명, 21.5% 성장)보다 각각 3.32배와 2.47배가 많다. 또한 2017년 1월 한 달 동안 방한 중국 여우커는 565,243명으로, 전년(521,981명) 대비 8.3%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월에는 590,790명으로 전년(546,408명) 대비 8.1%의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3월에 이르러, 방한 중국 여우커는 360,782명으로 전년(601,571명)대비 -40%, 같은 해 2월보다는 -39%, 같은 해 1월보다는 -36.2%, 대폭 감소하였다. 동시 전체 방한 외래객 수 역시 1월, 2월 13.3%,

17) 위의 자료 참조.

11.2%의 성장세에서 3월에는 -11.2% 감소세가 이어졌다.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인해 6월, 7월 두 달 감소세가 이어진 이후, 최소한 2013년 1월에서 2017년 3월까지 처음으로 나타난 월별 감소 현상으로, 우려하고 예측했던 중국의 사드보복이 한국관광산업에도 본격화 되었으며, 악영향은 4월, 5월, 10월까지 계속 이어졌다. 4월 전체 방한 외래객은 총 1,075,899명으로 전년(1,469,674명) 대비 26.8%가 감소하였고, 5월에는 총 977,889명으로 전년(1,492,680명) 대비 34.5%가 감소하였다. 4월 방한 중국 여우커는 227,811명으로 전년(682,318명) 대비 66.6% 대폭 감소하였고, 5월에는 253,359명으로 전년(705,844명) 대비 64.1% 역시 대폭 감소하였다. 단 5월에는 4월보다 2만여 명 소폭 상승세를 보였다. 6월에는 전년대비 66.4%, 7월에는 69.3%, 8월에는 61.2% 감소세가 이어지다 9월에 이르러 56.1%, 10월에는 49.3%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9월에 이르러 호전되는 양상을 띠었다.(통계수치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통계를 통계기준으로 삼았다.)¹⁸⁾

표3. 2016년과 2017년 1월-10월, 전체 방한 관광객 및 방한 중국 여우커의 월별 실태 (단위: 명)

		1월	2월	3월	1월-3월
전체 방한 관광객 수	2016년	1,077,431	1,126,250	1,389,399	3,593,080
	2017년	1,220,695 (13.3%)	1,252,080 (11.2%)	1,233,640 (-11.2%)	3,706,415 (3.2%)
방한 중국 여우커 수	2016년	521,981	546,408	601,671	1,670,060
	2017년	565,243 (8.3%)	590,790 (8.1%)	360,782 (-40%)	1,516,815 (-9.2%)

		4월	5월	6월	1월-6월
전체 방한 관광객 수	2016년	1,469,674	1,492,680	1,554,413	8,109,847
	2017년	1,075,899 (-26.8%)	977,889 (-34.5%)	991,802 (-36.2%)	6,752,005 (-16.7%)
방한 중국 여우커 수	2016년	682,318	705,844	758,534	3,816,756
	2017년	227,811 (-66.6%)	253,359 (-64.1%)	254,930 (-66.4%)	2,252,915 (-41%)

18) 위의 자료 참조.

		7월	8월	9월	10월	1월-10월
전체 방한 관광객 수	2016년	1,703,495	1,664,303	1,526,928	1,587,797	14,589,370
	2017년	1,008,671 (-40.8%)	1,103,506(- 33.7%)	1,078,653(- 29.2%)	1,165,638(- 26.6%)	11,108,473 (-23.9%)
방한 중국 여우커 수	2016년	917,519	873,771	726,266	680,918	7,015,230
	2017년	281,263 (-69.3%)	339,388 (-61.2%)	318,682 (-56.1%)	345,384 (-49.3%)	3,537,632 (-49.6%)

그러므로 2016년 12월 심각하게 거론되었던 限韓令과 중국의 아웃바운드 단체관광객 20% 축소에도 불구하고, 방한 중국 여우커에 대해서는 큰 변화의 추이를 찾아 볼 수 없으며, 2017년 2월까지 사드 배치 발표 후, 약 8개월 동안 중국의 사드보복은 한국관광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여우커의 한국 내 유입에 있어서는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중국정부의 사드 보복이 중국 여우커의 한국 내 유입, 즉 訪韓 금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은 2017년 3월 2일 롯데그룹이 경상북도에 있는 롯데 성주 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한다는 발표 때문이다. 이 발표가 나간 당일 밤, 중국정부는 한국관광을 전면금지하였고, 2017년 3월 2일 중국의 한국 관광 전면 금지령은 한국 관광산업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나 2017년 3월에서 10월까지의 월별 한국의 최대 방문 국가는 역시 중국이다. 이 기간 한국 방문 국가로서 1, 2위를 차지한 중국과 일본의 방한 실태는 다음과 같다. (통계수치는 한국관광공사의 관광통계를 통계기준으로 삼았다.)¹⁹⁾

표4. 2017년 3월-10월, 중·일 訪韓 실태(단위: 명, %)

2017년	3월	4월	5월	6월
중국	360,782(-40%)	227,811(-66.6%)	253,359(-64.1%)	254,930(-41%)
일본	274,478(22.4%)	165,748(-5.4%)	159,379(-10.8%)	167,785(-6.9)
2017년	7월	8월	9월	10월
중국	281,263(-69.3%)	339,388(-61.2%)	318,682(-56.1%)	345,384(-49.3%)
일본	170,634(-8.4%)	226,735(0.6%)	219,968(5.4%)	179,661(-20.9%)

19) 위의 자료 참조.

4. 訪韓 금지 결정 8개월 이후의 현황과 전망

매년 한국을 방문하는 거대한 소비 집단인 중국 여우커는 한국 경제·상업·대형 호텔·면세점·화장품·패션 등 업체 매출에 큰 도움을 주었고, 숙박·관광·교통운송·문화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 국내총생산(GDP)을 끌어올렸고, 2014년 중국 여우커 1인당 평균 소비 경비는 2,094.5달러(일본은 999.1달러)로, 한국 전체 외래객 1인당 평균 소비액(1,605.5달러)보다 1.3배나 많았다.²⁰⁾ 중국 여우커는 한국 호텔건설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2010년대에 이르러 서울 명동일대의 오피스빌딩과 쇼핑몰이 비즈니스호텔로 리모델링하는 추세였고, 비즈니스호텔의 성장과 함께 비즈니스호텔 시장에 대한 투자시대가 열렸다. 명동 M플라자(22층)·와이즈빌딩(15층)·삼년빌딩(14층)·청방빌딩(세종호텔 옆)·서대문 아트홀 등이 비즈니스호텔로 전환되는 등 비즈니스호텔 르네상스가 도래하였다. 호텔·유스호스텔·게스트하우스·여관·친척 또는 친구 집·학교·회사·기숙사·연구원·콘도·펜션 등 여러 숙박시설 중, 호텔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¹⁾ 한국 면세점 매출의 절반 이상을 중국 여우커에 의존하고 있는데, 2015년 한국의 4대 면세점 매출 총액 79,479억 원 가운데 63%, 50,102억 원을 중국인이 소비하였다.

20) <http://www.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2014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187쪽-189쪽 참조.

21) <http://www.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2007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국가별 보고서 중국' 3쪽/ '2007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국가별 보고서 홍콩' 3쪽/ '2007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국가별 보고서 대만' 3쪽/ '200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국가별 보고서 중국' 3쪽/ '200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국가별 보고서 홍콩' 3쪽/ '200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국가별 보고서 대만' 3쪽/ '2009 외국관광객 실태조사' 117쪽/ '2010 외국관광객 실태조사' 118쪽/ '2011 외국관광객 실태조사' 108쪽/ '2012 외국관광객 실태조사' 121쪽/ '2013 외국관광객 실태조사' 125쪽/ '2014 외국관광객 실태조사' 125쪽 등 자료에 따른다.

표5. 2015년 한국의 4대 면세점 매출액(억원)

	전체	중국	기타 외국인	내국인
롯데호텔	47,491	29,447	4,556	13,487
신라호텔	25,888	16,155	2,512	7,221
위커히호텔	2,874	2,254	154	467
동화면세점	3,226	2,246	501	479

(매출액은 “中 사드 보복에 한국 경제적 손실 최대 17조원”에서 언급한 바를 따랐다.)²²⁾

2017년 3월 2일 중국의 한국 관광 전면금지령에 이어 3월 11일 중국 여우커가 탑승한 국제크루즈가 제주도에 정박하였으나, 중국 여우커 3,400여 명이 배에서 내릴 것을 거부하는 일이 일어났다. 3월 13일 중국의 環球時報에는 “3,400명의 중국 여우커가 크루즈 하선을 거부하여 한국을 놀라게 하였다. 한국 매체에서는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할 것을 우려했다. (3,400名中國游客拒下郵輪震驚韓國, 韓媒擔憂中國報復成現實)”란 기사가 아래와 같이 나왔다.

“역대 전례가 없었다.”— 한국 주요 매체는 12일 이와 같이 전날 3,400 명의 중국 여우커가 탑승한 국제크루즈가 제주도에서 정박할 때, 크루즈에서의 下船을 거부한 사건을 형용하였다. 韓聯社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11일 오후 1시, 국제크루즈 회사인 코스타sailinna호가 제주도 외항에 도착하였으나, 선상의 3,400여 명의 중국 단체 여우커는 크루즈에서 내릴 것을 거부하였다. 보도에서는 이는 국제크루즈가 1990년대부터 제주도에 寄港한 이래, 외국 관광객이 단체로 한국여행을 거부하는 사건은 처음 발생한 것이라고 하였다. “중국의 보복이 현실화 되었다. 이는 단지 시작일 뿐이다.”고 하며, 한국 매체는 근심걱정에 빠졌다.....(“史無前例”—韓國主要媒體12日以此形容前一天3400名中國游客乘坐國際郵輪停靠濟州島時拒絕下船事件. 據韓聯社12日報導, 11日下午1時, 國際郵輪公司歌詩達賽琳娜號抵達濟州外港, 但船上的3400餘名中國團體游客拒絕下船. 報導稱, 這是國際郵輪上世紀90年代開始停靠濟州以來, 首次有外國游客集體抵制韓國旅游事件發生.“中國的報復成爲現實, 這僅僅是個開始”, 韓國媒體憂心忡忡.....)²³⁾

22) <http://www.koreafashionl.org>, 中 사드 보복에 한국 경제적 손실 최대 17조원' 2017년 3월 9일. 한국패션협회, 패션뉴스, 참조.

23) <http://world.huanqiu.com>, 環球時報, 王偉, '3400名中國游客拒下郵輪震驚韓國, 韓媒擔憂中國報復成現實' 2017년 3월 13일. 인용

2017년 5월 3일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 한국은 명목 GDP 대비 0.5%의 피해가 예상되지만, 중국은 0.01% 미미한 피해에 불과하다고 예상하였고, 관광산업에 있어서는 한국은 7.1조 원, 중국은 1.04억 원의 손실을 예상하였으며, 2017년 한국은 총 8조5천억 원, 중국은 1조1천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하였다.²⁴⁾ 즉 訪韓 금지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까지 한국 최대의 방문 국가로 자리 잡고 있지만, 한국의 관광산업에 미친 손실이 적지 않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관광·경제 보복은 이번 한 반도 사드 배치로 인하여 역대 처음으로 발생되었지만, 가까우면 서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은 잦은 편이며, 지금으로부터 49년 전, 1969년 따오위따오(釣魚島, 센카쿠열도) 주변 해역 석유 매장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중국·대만·일본의 영토분쟁이 시작되었다. 2010년 일본이 따오위따오 부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한 데 대하여, 중국정부는 일본 회토류 수출금지, 일본관광 자제 등 보복을 취했고, 2012년 중국정부는 일본정부의 따오위따오 국유화 방침에 반발하여 공식적인 타협을 거치지 않고, 일본제품 불매운동·자동차와 화장품 수입 감소, 경제교류를 중단하기도 하였다. 일본정부관광부 통계자료 訪日外客數(總數) 방일(訪日) 외래객 현황²⁵⁾에 따르면, 일본을 방문한 중국 여우커는 2007년 942,439명, 2008년 1,000,416명, 2009년 1,006,085명에 이어 중·일 영토분쟁이 일어난 2010년에 방일 중국 여우커는 1,412,875명으로 오히려 성장률 40%를 달성하였으며, 이듬해에는 1,043,246명으로 26.2% 감소하였는데, 2010년 영토분쟁의 보복이 이듬해에 이르러 나타났다. 2011년 2월에서 9월까지 약 13.3%에서 49.5%까지 감소세가 이어지다 10월에는 0.1% 감소로 호전하기 시작하여, 11월과 12월은 34.8%와 31.7% 대폭 증가하여 10개월 만에 회복세를 이루었다. 심각한 경제보복이 발생된 2012년에는 방일 중국 여우커는 1,425,100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24) <http://www.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 손실과 대응방안' 2017년 5월 2일. 7쪽-8쪽 참조.

25) <http://www.jnto.go.jp>, 일본정부관광부, 자료실, 통계자료, 연도별월별 訪日外客數(總數) 참조.

36.6% 성장률을 보였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약 43.6%까지 감소세가 이어졌다. 9월부터 12월까지는 또 대폭적인 증가세가 이어져, 2014년에는 2,409,158명으로 대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83.3% 성장률을 이루었다.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는 4,993,689명으로 전년대비 107.3% 성장을 이루었고, 2016년에는 6,373,000명으로 전년 대비 27.6% 성장률을 이루며, 2014년부터는 100만 명 중국 여우커 시대에서 벗어나, 200만 명·500만 명·600만 명, 대폭적인 성장을 거듭 이루었다. 아래 표6과 표7의 통계수치는 일본정부관광부의 통계자료를 따랐다.²⁶⁾

표6. 중국 여우커의 訪日 현황(2007년-2016년) (단위: 명)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942,439	1,000,416	1,006,085	1,412,875	1,043,246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425,100	1,314,437	2,409,158	4,993,689	6,373,000

표7. 중·일 영토분쟁 후, 중국 여우커의 訪日 월별 현황(단위: 명, %)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1월	92,120 (-16.5)	99,131 (7.6)	136,665 (37.9)	72,301 (-47.1)
2월	121,494 (92.9)	105,362 (-13.3)	81,966 (-22.2)	80,903 (-1.3)
3월	123,314 (22.2)	62,450 (-49.4)	129,302 (107)	102,265 (-20.9)
4월	150,788 (41.2)	76,164 (-49.5)	148,793 (95.4)	100,160 (-32.7)
5월	112,558 (86)	58,608 (-47.9)	112,152 (91.4)	81,571 (-27.3)
6월	103,706 (183.4)	61,419 (-40.8)	125,983 (105.1)	98,996 (-21.4)
7월	164,944 (142.8)	86,963 (-47.3)	204,270 (134.9)	139,905 (-31.5)
8월	171,503 (57.3)	102,640 (-40.2)	190,254 (85.4)	162,288 (14.7)
9월	137,333 (39.1)	112,493 (-18.1)	121,673 (8.2)	156,201 (28.4)
10월	106,237 (-1.9)	106,174 (-0.1)	69,713 (-34.3)	121,335 (74)
11월	68,385 (-16.1)	92,154 (34.8)	51,993 (-43.6)	101,940 (96.1)
12월	60,493 (-3.3)	79,688 (31.7)	52,336 (-34.3)	96,572 (84.5)
총계	1,412,875 (40.4)	1,043,246 (-26.2)	1,425,100 (36.6)	1,314,437 (-7.8)

일본에 대한 중국의 영토 보복의 사례와 중국 여우커의 訪日 월별 현황을 살펴 보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 역시 관계개선은 불가피하다. 한반도 사드

26) 위의 자료 참조.

배치 문제로 야기된 한·중 관계는 중·일의 영토분쟁 문제와는 분명 다르다.

첫째,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하여 중국은 한국의 입장, 즉 북한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예방책과 미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일본의 영토분쟁과는 달리 이 문제를 바라보는 측면도 있다. 다만 한국의 사드배치가 중국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하여,.....사드 미사일은 일종의 한국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예방시스템에 속한다. 그러나 사드의 적용 범위가 너무 커서 중국에 대하여 같은 위협을 조성한다. 그래서 중국 측은 한반도 사드 미사일 배치를 반대한다.(韓國爲了預防朝鮮的軍事行動,.....薩德導彈屬於一種維護韓國自己的安全防禦系統, 但是薩德的覆蓋範圍太大了, 對中國也同樣造成了威脅, 所以中方反對韓部署薩德導彈.)²⁷⁾

중국 측은 사드 미사일 시스템의 감시 범위는 한반도를 훨씬 더 넘어서 중국의 전략안전에 위협을 준다고 여긴다. 사드 레이더의 최대 탐지 거리는 800키로 미터인데, 그러나....탐지 미사일이 발사될 때, 그 것의 탐지 거리는 훨씬 더 크다.(中方認爲, 薩德反導系統的監測預警範圍遠遠超出了半島, 危害了中國的戰略安全.....薩德雷達的最大探測距離爲800公里, 然而,....探測導彈發射時, 它的探測距離要大得多.)²⁸⁾

둘째, 중국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한중관계에 대한 신뢰를 한국이 저버렸고, 중국인 마음을 상하게 하였다고 생각한다. 즉 감정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① 중국은 2016년 2월, 중국 국가 주석인 시진핑(習近平)이 다년간의 관례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생일축전을 보냈는데, 3월 한미 양국은 사실 사드 배치를 체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언급을 은폐했다고 생각한다.²⁹⁾

27) <http://zhidao.baidu.com>. 百度知道, “中韓薩德事件是怎麼回事?”의 其他回答, 2016년 8월 6일. 인용.

28) <http://www.hao123.com>. 南方財富網, ‘薩德事件后的中韓關係如何? 薩德事件對中韓經濟有何影響?’ 2017년 3월 10일. 인용.

29) <http://world.huanqiu.com>. 環球網, 國際新聞, ‘薩德會摧毀中韓關係嗎?’ 2016년 8월 20일. 참조.

② 심각한 것은 특히 당 해 7월 중국이 南中國海 위기에 대응하고, 7월 12일 필리핀이 제기한 소위 '仲裁案(중재안)'의 결과가 발표되기 전, 한·미 양국이 7월 8일을 선택해서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을 정식으로 선포하고, 7월 13일 경상 북도성 주시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포한 점들이다.³⁰⁾ ③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들은 미국의 압박에도 북한에 대하여 햇볕정책을 펼쳤는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르러 같은 사안을 완전 다른 결과를 초래한 것에 중국은 불쾌감을 느낀다.³¹⁾

셋째, 사드 배치에 부정적 생각을 가지며, 중국과의 관계개선에 무게를 둔 문재인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희망적으로 비추어졌다. 5월 10일 시진핑 주석은 문대통령에게 한중관계 개선의 메시지, 관계 발전에 함께 노력하자는 축전을 보내 왔다. 한·중 정상 간의 통화에 이어, 한국정부 대표단의 파견 움직임도 있었다. 그러나 문 정부 4개월(2017년 5월-9월) 이래, 사드 배치문제에 대한 태도가 거듭 바뀌면서 중국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였다.³²⁾ 그러나 문정부의 한중관계 개선에 무게를 둔 노력이 마침내 2017년 10월 26일 中國 外交部 例行記者會에서 기자의 “중국 선거에 따라 새로이 탄생된 영도자와 더불어 한중관계가 서서히 좋아질 것에 대한 기대 또한 서서히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 측은 이 점에 대하여 어떠한 평론을 가지고 있습니까?(隨着中國選舉產生新一屆領導班子, 對於韓中關係慢慢回暖的期待也逐漸增加. 中方對此有何評論?)”³³⁾란 질문에 대하여, 대변인耿爽은 “중국 측은 고도로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한다. 중한 양국이 건국 이래, 양

30) 위의 자료 참조.

31) 위의 자료 참조.

32) <http://news.xinhuanet.co.kr>, 新華社 서울(國際觀察), ‘強推薩德部署韓國政府四面楚歌’ 2017년 9월 10일. 참조. 이 기사에서는 “한국정부는 초기에는 사드 론지 프레임이 비밀리에 한국에 배치한 것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을 내렸고, 7월 28일 국방부에서는 또 배치지역에 대한 환경평가를 전개한다고 선포하였으며, 9월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안전적 긴박성에 따라 사드의 임시 배치를 하였고, 사드의 최종 배치는 환경영향평가가 완성된 후 다시 결정한다고 성명하였다”등 내용을 다루고 있다.

33) <http://news.163.com>, 海外網(北京), ‘中國產生新一屆領導班子后, 中韓關係會回暖?外交部回應.’ 2017년 10월 26일. 인용.

국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하여 경제와 무역, 인문 등 각 영역에서의 합작은 양국 국민에게 실제로 좋은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우리는 한국과 공동으로 노력하기를 원하며, 목전에 양국관계가 발전하는 가운데 처한 여러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양국의 관계가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앞으로 발전하기를 추진한다. (中方高度重視同韓國的關係. 中韓建交以來, 雙邊關係迅速發展, 兩國在經貿, 人文等各領域的合作給兩國人民帶來了實實在在的好處和利益. 我們願同韓方共同努力, 克服目前兩國關係發展中面臨的一些障礙, 推動兩國關係健康穩定向前發展.”³⁴⁾ 고 답을 하였다.

2017년 10월 31일 中國外交部 例行記者會에서 기자의 “...중·한 양국이 중한관계에 의거 소통을 진행한다는 뉴스 초고는 중국이 사드문제에 있어 입장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중한관계가 이미 호전되었습니까?(...中韓雙方就中韓等關係進行溝通的消息稿, 這是否意味着中方在“薩德”問題上立場有所變化, 中韓關係已經轉圓?)”³⁵⁾란 질문에 대하여, 외교부 대변인 華春瑩은 “중국 측은 사드 문제에서의 입장이 명확하고, 일관적이며, 변화된 것이 없다. 한국 측이 한국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 이상 반입 하지 않으며, 한·미·일의 안전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고, 더 이상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였다. 지금 한반도에 배치한 사드 시스템은 중국의 전략·안전·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한국이 언행일치하여 이상의 성명서를 실천하기를 희망한다....(中方在薩德問題上的立場是明確一貫的, 沒有改變. 我們注意到, 韓方公開表示, 韓方不加入美國反導體系, 不將韓美日安全合作發展成三方軍事同盟, 不追加部署薩德系統, 目前在韓部署的薩德系統不損害中方戰略安全利益. 希望韓方言行一致, 將上述表態落到實處...)”³⁶⁾ 고 하였다.

2017년 11월 1일 中國外交部 例行記者會에서 기자의 “중·한 양국은 양국관계에 의거 소통을 진행한다는 소식 초고를 발표하였는데, 이 이후 양국의 경제관

34) 위의 자료 인용.

35) <http://military.china.com>, 人民日報, ‘中韓關係已轉圓?外交部: 中方在薩德問題上的立場沒變,’ 2017년 10월 31일. 인용.

36) 위의 자료 인용.

계는 매우 빠르게 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中韓兩國發布了雙方就兩國關係等進行溝通的消息稿, 在此之後兩國經濟關係是否會很快恢復正常?)³⁷⁾란 질문에 대하여, 华春莹은“어제 내가 말 하였듯이 사드문제를 해결하고, 중한관계 발전의 장애물을 해소하는 것은 중·한 양국의 공동 소망이며, 또한 쌍방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 우리는 중·한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양 국의 관계가 조속히 정상적이고 발전적인 궤도로 돌아가기를 추진한다. (昨天我說過, 妥善處‘薩德’問題, 掃除中韓關係發展障礙, 是中韓兩國共同意願, 也符合雙方共同利益. 我們希望中韓雙方共同努力, 推動雙邊關係盡快回到正常發展軌道.”³⁸⁾고 말하였다.

2017년 11월 28일 중국 베이징과 산둥성 旅游局은 드디어 한국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과 베이징은 12월 2일 訪韓 중국 여우커 32명의 비자를 주한 중국대사관에 신청하였다.³⁹⁾ 단, 롯데호텔 투숙과 롯데면세점 쇼핑은 여행상품에서 제외되었다.⁴⁰⁾ 중국 여우커의 한국 방문 금지가 풀리는 시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문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2017년 12월 21일 산둥지역의 한국 단체관광이 다시 전격적으로 금지 조치되었으며,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한국 정부의 분석처럼 한국의 열띤 반응에 중국 민심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는 의미로, 일시적인 조치로 분석할 수 있다.(2017년 12월 22일

37) <http://news.hexun.com>, 中新經緯, ‘中韓兩國經濟關係要恢復正常了?外交部這麼說.’ 2017년 11월 1일./ <http://news.163.com/> 環球網, 海外網(北京), 國際新聞, ‘外交部回應, 中韓經濟關係是否會很快恢復正常’ 2017년 11월 1일. 인용.

38) 위의 자료 인용.

39) <http://finance.sina.com.cn>, 新浪財經, 海外網(北京), ‘韓中涉薩矛盾后首批中國團體游客下月訪韓’ 2017년 11월 28일./ <http://www.baidu.com>, ‘薩德事件后中國團體游客12月2日首次訪韓, 2017년 11월 28일. 참조.

40) 2017년 3월 2일 롯데그룹의 성주 골프장 사드 배치 부지 제공 발표이후, 중국정부는 중국에 진출해 있는 롯데그룹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롯데 불매운동이 중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불시에 소방점검이 이루어져, 일부 소방법 위반으로 제심사에 통과 전까지 한 달간 휴업조치를 내리면서, 3월 8일까지 중국 내 롯데마트 55개 점포가 영업정지를 받았다. 롯데백화점 기습시위·중국 롯데홈페이지 해킹·롯데면세점 큰 손이자 주 고객인 중국고객 감소 등 롯데에 중국 폭풍이 밀려왔다. ‘중국에서 나가(滾出中國去)’라는 현수막도 걸렸다. 2017년 5월 중국에 진출해 있는 99개 롯데마트 가운데 74개가 여전히 중국의 소방 점검에 따라 강제 영업정지 상태에 놓였고, 12개 롯데마트도 불매운동으로 휴점 상태에 이르러, 9월 롯데그룹은 마침내 중국 롯데마트 철수를 결정하였다.

까지의 현황)

2017년 10월 26일에서 11월 2일까지의 중국 측 外交部 대변인 발언에 따라 10월 13일 중·한 양국이 貨幣互換協議를 연장한 이후, 24일은 필리핀에서 한·중 양국의 國防長의 회담이후,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해 붉어진 한·중관계가 호전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장 王毅의 “사드 시스템 배치는 중한관계에 영향을 주는 최대의 문제다(部署薩德系統是影響中韓關係的最大問題)”⁴¹⁾란 발언처럼, 한반도 사드 배치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시종일관 변하지 않았다. 이는 한반도에 미국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더 이상 반입 하지 않는 것, 한·미·일의 안전협력이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는 것, 더 이상 사드 시스템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삼불정책’ 하에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즉 ‘삼불정책’이 이행되지 않을 시, 사드문제 등 한중관계는 언제든지 또 다시 붉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중국 環球網 評論에서 분석⁴²⁾ 한 바와 같이 미국이 미국의 최대 적국인 구소련을 위협하기 위하여 중국의 손을 잡았고, 지금 미국은 일본을 내세워 중국을 위협하므로, 중일관계는 갈수록 멀어져 지금의 심각한 국면까지 이르렀다. 중·한 양국의 관계 역시 미국의 설정 하에 중일관계의 길을 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예전대 한중관계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개입⁴³⁾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실마리를 풀기 힘든 요인이다. 한편 2014년(1.07억 명)·2015년(1.17억 명)·2016년(1.31억 명) 해외 중국 여우커를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은 중국이며, 중국은 한국에게는 협력 또는 중국 현지화한 한국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특히 한국 관광 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여우커는 일본을 제치고 제1의 訪韓 국가로 부상한 2013년에는 전체 방한 외래객의 36%, 2014년에는 43%, 2015년에는

41) <http://www.hao123.com>, 南方財富網, ‘薩德事件后的中韓關係如何? 薩德事件對中韓經濟有何影響?’ 2017년 3월 10일. 인용.

42) <http://opinion.huanqiu.com>, 環球網 評論, ‘中日歷史警示薩德危機下中韓關係’ 2016년 8월 19일.

43) 중국은 2016년 7월 8일 한국 사드 배치 발표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헤이그 상설(海牙常設) 仲裁裁判所(PCA) 판결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불만과 함께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전략의 일환으로 인식하였다. (<http://cafe.daum.net>, 이상현·경제홍,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의 인식과 한국의 대응정책’ 2016년 8월 18일. 참조.

45%, 사드 배치 문제가 시작된 2016년에는 47%를 차지하므로 한국에서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형성하였다. 2017년(1월-10월)에는 32%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한 2017년 3월에서 10월까지 -40%부터 -69.3%까지 심각한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여전히 전체 방한 외래객의 28%를 차지하며, 한국의 최대 방한 국가로서 자리매김을 하였다. 이렇게 사드보복이 있었지만, 중국 여우커는 그래도 전체 방한 외래객의 28%를 차지하였고, 그러나 한국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지금 중국 여우커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산업은 각 방면으로의 개선과 개발이 최우선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중국 여우커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따라서 한중관계개선 역시 소홀히 할 수 없다. 또한 중국 측의 의도를 정확히 직시해야 하며, 성급한 열 된 반응은 삼가 해야 한다. '삼불정책'이 이행되지 않을 시, 사드문제 등 한중관계는 언제든지 또 다시 붉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한반도 사드 배치 이전의 한·중 관계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지금의 한국은 중·미 간 경쟁구도가 가열되는 지정학적 중심지로 가고 있고, 한국은 향후 언제든지 제2, 제3의 사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대중인식과 문제 접근은 과거와는 달라야 할 것이며, 독자적인 생존방법을 모색해야한다. 또한 미국만이, 한반도 사드 배치만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武力的 위협보다는 평화적 대화로 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 상책이다. 또한 지금의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노선을 걷는, 즉 정치이외는 자본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나라로서 북한 역시 이러한 국가운영 모델로 가기를 중국은 원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중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삼불정책'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통일이다.

5. 맺음말

중국은 2013년에 이르러, 드디어 일본을 제치고, 2016년 7월 8일 사드

(THAAD) 배치가 결정된 후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까지 최대의 한국 방문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2월까지 해가 거듭 할수록 놀라운 신기록을 세웠고, 한국관광산업의 새 시대를 열었으며, 한국 관광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2016년 10월 아웃바운드 단체관광객 20%를 축소하고, 11월 경북 성주시에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되자, 한류콘텐츠 제한을 비공식적으로 선포하였으며, 여행규제를 강화하였다. 한국에서는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에 따른 '한한령(限韓令)'이란 말이 출현하였다. 그러나 訪韓 중국 여우커(游客)는 2016년 10월·11월·12월에 각각 4.7%, 1.8%, 15.1%의 성장률을 달성하였고, 사드 배치가 발표된 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중국 여우커 월별 수치는 모두 최고의 기록을 세웠고, 이 기간 중국 여우커는 4,250,966명에 달하며, 2016년 전체 방한 외래객 8,067,722명의 52.7%를 차지하였다. 또한 사드 배치가 발표된 7월 한 달 동안 방한 중국 여우커는 917,519명으로 놀라운 성장률을 이루며, 한국 역대 월별 최대기록을 세웠고, 월별 90만 명 시대를 열었다.

그러므로 2016년 12월 심각하게 거론되었던 限韓令은 訪韓 중국 여우커에 대해서는 큰 변화의 추이를 찾아 볼 수 없다.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소폭의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대체적으로 월별 신기록을 세웠고, 이 기간의 감소세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제한적 감소 현상이라 볼 수 없음을 통계를 통하여 알 수 있다. 2017년 2월까지 사드 배치 발표 후, 약 8개월 동안 중국의 사드보복은 한국관광산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여우커의 한국 내 유입에 있어서는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3월에 이르러 방한 중국 여우커는 전년대비 40% 대폭 감소하기 시작하여, 4월에서 10월까지 34.5%(5월) ~ 69.3%(7월) 대폭 감소하였다. 중국 여우커의 한국 내 유입, 즉 訪韓 금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원인은 2017년 3월 2일 롯데그룹이 경상북도에 있는 롯데 성주 골프장 부지를 사드 배치 부지로 제공한다는 발표가 나간 당일 밤, 중국정부는 한국관광을 전면 금지한 결과이다. 2017년 3월 2일 한국 관광 전면 금지령은 한국 관광산업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일본에 대한 중국의 영토보복의 사례 이후, 중국 여우커의 訪日 월별 현황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 역시 관계개선 등 희망적인 추측과 분석을 할 수 있다. 또한 그 동안 중국 측 공개 발언을 보더라도, 일본과는 달리,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하여 중국은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한국의 사드배치는 중국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며, 중국과 미국 사이의 한국에 대한 감정적인 문제로 접근할 수 있다. 2017년 11월 28일 중국 베이징과 산둥성 旅游局은 한국 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허용하여, 중국 여우커의 한국 방문 금지가 일부 풀렸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2017년 12월 21일 산둥성의 한국 단체관광이 다시 전격적으로 금지 조치되었다.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국 정부의 분석처럼 한국의 열띤 반응에 중국 민심을 고려해 속도조절을 하는 의미로, 일시적인 조치로 간주할 수 있다.(2017년 12월 22일까지의 현황)

그러나 중국 외교부장 王毅의 “사드 시스템 배치는 중한관계에 영향을 주는 최대의 문제다”란 발언과 같이 중국의 한반도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은 시종일관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한국의 ‘삼불정책’ 하에 한중관계 개선이 가능하다. 또한 한중관계는 한국과 중국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이 개입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실마리를 풀기 힘든 요인이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은 중국이며, 중국은 한국에게는 협력 또는 중국 현지화한 한국 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특히 한국 관광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여우커는 일본을 제치고 제1의 訪韓 국가로 부상한 2013년에는 전체 방한 외래객의 36%, 2014년에는 43%, 2015년에는 45%, 사드 배치 문제가 시작된 2016년에는 47%를 차지하므로 한국에서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이루었다. 2017년(1월-10월)에는 32%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한국 단체관광을 금지한 2017년 3월에서 현재(10월)까지 심각한 감소세가 이어졌지만, 중국은 여전히 전체 訪韓 외래객의 28%를 차지하며, 한국의 최대 訪韓 국가이다. 이렇게 사드보복이 있었지만, 중국 여우커는 전체 방한 외래객의 28%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한국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입었다. 지금 중국 여우커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한국의 인바운드 관광산업은 각 방면으로의 개선과 개발이 최우선의 과제이기도 하지만, 중국 여우커를

결코 소홀히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현 정부의 한중관계개선에 대한 노력은 당연한 행보라 생각한다. 또한 중국 측의 의도를 정확히 직시해야 하며, 성급한 열 된 반응은 삼가 해야 한다. '삼불정책'이 이행되지 않을 시, 사드문제 등 한중관계는 언제든지 또 다시 붉어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한반도 사드 배치 이전의 한·중 관계로 되돌아 갈 수는 없다. 지금의 한국은 중·미 간 경쟁구도가 가열되는 지정학적 중심지로 가고 있고, 한국은 향후 언제든지 제 2, 제3의 사드 시대를 맞이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대중인식과 문제 접근은 과거와는 달라야 할 것이며, 독자적인 생존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미국만이, 한반도 사드 배치만이 한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낼 수 있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武力的 위협보다는 평화적 대화로 풀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 상책이다. 또한 지금의 중국은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노선을 걷는, 즉 정치이외는 자본주의 노선을 걷고 있는 나라로서 북한 역시 이러한 국가운영 모델로 가기를 중국은 원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중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삼불정책'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사실 이 모든 문제의 열쇠는 통일이다.

〈參考文獻〉

- <http://www.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통계, 연도별(월별) 통계.
<http://www.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연도별 국가별 보고서).
<http://www.ctaweb.org>, 中國旅游研究院官方網站. 中國旅客出境.
<http://www.jnto.go.jp>, 일본정부관광부, 통계자료, 訪日外客數.
<http://www.riss.kr>, 한술연구정보서비스.
<http://marketingstylist.tistory.com>, '사드배치로 인해 알게 된 중국과의 관계, 관광산업 피해 이번만 일까?' 2017년 3월 17일.
<http://www.koreafashionl.org>, '中 사드 보복에 한국 경제적 손실 최대 17조원' 2017년 3월 9일. 한국패션협회, 패션뉴스.

- <http://n2xt.tistory.com>, '중국, 사드 부지 제공 롯데에 전 방위 보복' 2017년 3월 10일.
- <http://www.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현안과 과제, '최근 한중 상호간 경제 손실과 대응방안' 2017년 5월 2일.
- <http://www.nbnnews.co.kr>, '중국 한한령'으로 한국 GDP 2.08% ↓ 예상' 한경연, 2017년 6월 23일.
- <http://world.huanqiu.com>, 環球時報, 王偉, '3400名中國游客拒下郵輪震驚韓國, 韓媒擔憂中國報復成現實' 2017년 3월 13일.
- <http://world.huanqiu.com>, 環球網, 國際新聞, '薩德會摧毀中韓關係嗎?' 2016년 8월 20일.
- <http://blog.sina.com>, 新浪 博客, '薩德事件的影響下, 中韓的經濟關係如何演化?' 2016년 7월 19일.
- <http://zhidao.baidu.com>, 百度知道, '中韓薩德事件是怎麼回事' 2016년 8월 6일.
- <http://www.hao123.com>, 南方財富網, '薩德事件后的中韓關係如何? 薩德事件對中韓經濟有何影響?' 2017년 3월 10일.
- <http://opinion.huanqiu.com>, 環球網 評論, '中日歷史警示“薩德”危機下中韓關係.' 2016년 8월 19일
- <http://news.xinhuanet.co.kr>, 新華社 서울(國際觀察), '強推薩德部署韓國政府四面楚歌' 2017년 9월 10일
- <http://news.163.com>, 海外網(北京), '中國產生新一屆領導班子后, 中韓關係會回暖? 外交部回應.' 2017년 10월 26일.
- <http://military.china.com>, 人民日報, '中韓關係已轉圜? 外交部: 中方在薩德問題的立場沒變' 2017년 10월 31일.
- <http://news.hexun.com>, 中新經緯, '中韓兩國經濟關係要恢復正常了? 外交部這麼說' 2017년 11월 1일.
- <http://news.163.com>, 環球網 海外網(北京), 國際新聞, 外交部回應, '中韓經濟關係是否會很快恢復正常' 2017년 11월 1일.
- <http://news.sina.com.cn>, 新浪 新聞中心, '中韓關係迎2.0時代, 韓國接下來應如何與中國相處?' 2017년 11월 3일.
- <http://finance.sina.com.cn>, 新浪財經, 海外網(北京), '韓中涉薩矛盾后首批中國團體游客下月訪韓' 2017년 11월 28일.
- <http://www.baidu.com>, '薩德事件后中國團體游客12月2日首次訪韓' 2017년 11월 28일.
- 권기영, 「한한령을 통해 본 중국대외문화정책의 딜레마」, 『중국문화연구』 vol.37, 2017년.

김정만, 『관광학개론』, 서울, 형설출판사, 2000년.

김종은, 『관광학원론』, 서울, 현학사, 2000년.

〈Abstract〉

A Study on the Chinese Youke's(游客) Visiting Ban Decision and Prospect to Korea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AAD Plac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Wang, Ok-Ji

In this paper, based on the preset situation of foreign tourists visiting Korea for 40 years, about Chinese youke who visited Korea the most, analyze trend of change before and after THAAD placement decision on the Korean peninsula. On the other hand,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THAAD placement, the Chinese government's decision to ban visiting Korea. This will be examined in detail. Also, in China's retaliation against Japan, will also look at the prospects for the Korean tourism industry. Therefore, in addition to providing objective utilization data, contribute to the policy and direction of the Korean tourism industry in accordance with the THAAD retaliation. China eventually overtake Japan in 2013, THAAD placement was decided in July 2016, but until October 2017, China is the largest country to visit Korea. It also opened a new era in the Korean tourism industry by February 2017. In December 2016, China's 'Korea wave Prohibition Order' has become a serious issue. However, the order to ban the visits to Korea began in March 2017. But in March, April until October, China is still Korea's largest visitor. But with the THAAD revenge of China, Korea's exports decreased by 33.7%, GDP decreased by 2.08%. The fact that the United States is included as a subject is a difficult problem to solve.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tourism industry, where the Korean tourism industry can flourish despite the

political problems, remains a top priority. But now the largest consumer market in the world is China. Can not neglect a Chinese youke's.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it is possible to improve Korea-China relations under the Korean 'Sambul policy'.

Key words: China, Youke, Korea, Tourism, THAAD, Retribution, 'Korea wave Prohibition Order'

이 논문은 2018년 4월 15일에 접수되어 2018년 5월 9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8년 5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